

# 다니엘의 책 - 번호 126

예언적 서사의 베일 벗기기: 다니엘서 11장과 현대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

Jeff Pippenger

2024-03-09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개신교 뿔의 역사를 공화주의 뿔의 역사와 일치시킨다. 두 뿔은 모두 1798년에 시작하며, 그들의 증언은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까지 계속된다. 두 뿔 모두 각 뿔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신적 성격의 이중 문서를 받았다. 킹 제임스 성경(구약과 신약)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종교적 뿔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독립선언서와 미합중국 헌법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치적 뿔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40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이며, 그 역사적 증언은 1776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이르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며, 미국의 종말은 그 시작의 역사 속에 표상되어 있다. 미국의 마지막 시기는 다니엘 11장 2절에 표상되어 있는데, 그 구절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시작하는 여섯 명의 대통령을 제시한다. 레이건은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 마지막 시기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 시기는 1989년 끝의 때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2절은 레이건, 부시(아버지), 클린턴, 부시(아들), 오바마, 트럼프만을 다룬다. 곧 다가올 일요일법에 이르는 역사를 완성하려면 다른 선들이 필요하다. 1989년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법까지는 다니엘 11장 2절에 제시된 특정한 하나의 선이다.

1798년은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며, 일요일 법령은 그 끝을 가리킨다. 그리고 1798년이 그 시작을 알린다. 1776년에 시작된 220년은 땅의 짐승에 관한 또 하나의 예언적 선으로, 1776년에 시작하여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지식에서 나온 메시지가 1996년에 정식화될 때 끝나는 기간을 지목한다. 그 220년의 기간은 미국의 미래를 지목하는데, 그 시작에서 1776년에 공표된 유럽 왕들의 국정 운영과 가톨릭의 교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제거될 것이다. 1776년부터 1989년까지는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에서 하나의 특정한 선이다.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은 538년에 교황권이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 확립되기 이전의 예언적 기간을 나타낸다. 미국은 머지않아 제정될 일요일 법령에서 짐승의 형상을 완전히 형성한다.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되기 위한 30년의 준비 기간은 교황권 짐승의 형상의 한 요소이다. 1798년에 땅의 짐승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왕좌에 올랐을 때를 향해 가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은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기간과 상응한다.

예수님은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그러므로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역사에 나타난 예언적 기간은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예언적 기간에 의해 증언되며, 두 증인을 제시한다. 그 두 기간은 성경 예언의 왕국이 수립되기 전에 특정한 예언적 기간이 앞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된다. 이 둘은 함께 1989년에 도래한 마지막 때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기간이 538년과 1798년 각각에 앞섰던 두 기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1989년의 종말의 때로부터 다니엘서 11장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적 역사는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 기간으로 표상되어 왔으며, 또한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으로도 표상되었다.

다니엘서 11장 2절은 이 예언적 시기에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트럼프가 등장할 때, 그가 'stir up', 즉 '깨우다'라는 의미로 전 세계를 글로벌리스트들의 의도를 깨닫도록 각성시킬 것이라고 밝힌다. 그 글로벌리스트들은 엘리트가 자신들의 노동자 드론들을 지배하는 두 계층 체제로 세계의 구조를 재설정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레이트 리셋'이라 부르는 것의 최우선 과제는 중산층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로 대표되는 엘리트들이 그녀의 섬세한 빵을 만들어낸 하층민들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글로벌리스트의 종교는 뉴에이지 영성주의이며, 각성주의와 다양성·형평성·포용의 철학,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부패한 이데올로기, 지구온난화라는 거짓된 소위 '과학', 그리고 집단학살적 인구 통제를 위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노력은 트럼프가 역사 속에 등장해 그레시아에 대항하여 전체 영역을 '뒤흔들려고' 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2016년 트럼프의 등장은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의 각성을 미리 약화시키기 위해 사탄이 설계한 가짜인 거짓 각성(선동)의 도래를 의미한다. 세계 무대에서든 미국 내에서든 글로벌리스트들은 예언적으로 용으로 상징된다. 그들은 열 왕, 세계의 은행가들, 전 세계의 억만장자 상인들, 프리메이슨과 기타 비밀 결사들이다.

세계주의적 용의 세력들은 로우페어(법을 이용한 전쟁)에 특화된 자들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개되는 법적 논증 속에서 사탄이 자주 그렇게 묘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항상 따르는 박해를 신실한 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증언하기 위해 이 나라의 법정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탄은 트럼프주의로 들끓는 이 나라에서 현재 만연한 부패한 판사들, 부패한 법무장관들의 상징이며, 그러한 부패한 법원들과 법조인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사탄의 주요한 상징인 혁명과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고 야기하는 단체들을 언제나 지지한다.

소련은 용의 예언적 상징이었다. 그 밖의 것들 가운데서도 바로의 무신론은 용의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사십 절의 남방 왕은 히브리어 '네게브'의 왕인데, 이는 애굽을 뜻하며 그 절에서는 '남방'으로 번역되어 있다. 바로는 1798년 '끝의 때'에 남방 왕이었던 프랑스의 무신론을 성경적으로 상징하며, 1989년 '끝의 때'의 소련도 상징한다. 둘 다 용의 세력이었고, 둘 다 용의 왕국인 이교 로마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말세에 배교한 개신교를 상징하며, 교황권은 지상의 왕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너뜨려야 할 세 가지 장애물 중 첫째를 극복하기 위해 배교한 개신교와 소련의 용 사이의 투쟁을 조작했다. 다음 장애물은 배교한 개신교 그 자체이며, 이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교황권이 정복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권력은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각성을 촉발했고, 그 각성은 용과 배도한 개신교 사이의 전 세계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교황권은 동일한 두 권세, 곧 용과 배도한 개신교 사이의 투쟁을 이용하여, 첫 번째 지리적 장애물을 무너뜨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리적 장애물을 무너뜨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거기에, 일곱째 왕국인 유엔(곧 용의 권세)이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자기 왕국을 짐승에게 넘겨주는지에 대한 논리가 담겨 있다. 이는 1989년 이래로 그것이 이미 패배한 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차원에서는 1989년에 교황권이 소련이라는 "용"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투쟁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적 워크주의와 배교한 개신교의 MAGA주의 사이의 투쟁은 용이 아니라 배교한 개신교를 패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2016년에 시작되었고, 이어 2020년에 성경에서 거짓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용이 선거를 훔쳐, 정치적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MAGA 운동을 "죽였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곧 무신론의 짐승이 두 증인을 살해했고,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거리에 내버려졌다. 윌리엄 밀러의 규칙은 예언적 상징이 한 가지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 결말로 이끄는 용과 배교한 개신교의 투쟁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그 두 증인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입니다. 공화주의의 뿔은 2020년에 성경이 '거짓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아버지로 둔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그 투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서 임박한 일요일법이 시행되며, 영감에 따르면 그 사탄적 일을 이루는 자는 바로 배교한 개신교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는 데 가장 앞장설 것이다; 그들은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데 있어 로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대논쟁, 588.

인간사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2016년에 시작된 그 투쟁 속에 드러나 있다. 그 투쟁 속의 권세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권세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 각자에게는 고유한 예언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늘 용, 그 다음 짐승, 그리고 그 뒤의 거짓 선지자라는 순서를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용의 예언적 특징을, 다음으로 짐승의 것을, 마지막으로 배교한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의 것을 살펴볼 것이다.

진보파 민주당원들은 미국의 배교한 개신교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예언적으로 세계주의와 용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주일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언적 서사를 성취하기 위해 공화당이 다시 집권해야 한다. 용의 권세의 상징인 바로와 그리스도의 때 이교 로마의 용의 권세는, 마지막 때에 용의 권세가 모세의 때와 그리스도의 때에 있었던 것처럼 영아 학살을 조장하는 권세임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된다.

마지막 때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때이다.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역사 속에서 용의 세력은 아기들을 죽이려 했다. 그렇게 한 것은 사탄이 주께서 구원자 모세와 구속자 그리스도를 세우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용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크게 분노하여 내려오며, 14만 4천에 속하게 될 자들을 멸하려는 시도 속에서 영아 살해를 조장하는 것 역시 용의 세력이다.

진보적이고 세계화주의적이며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당은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이루어질 삼중 연합을 성사시키는 데 '선두'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용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을 가로질러 뻗어 로마 권세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가 그 손을 구렁 너머로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맞잡게 될 때, 그리고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주의적인 정부로서 자기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기 위한 조처를 마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기묘한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 『교회증언』 제5권, 451.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세력 각각의 예언적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스도로 표상된 한 백성을 일으키려 하시는 바로 그때, 용의 세력은 영아 살해를 조장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머지않아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시행된 뒤 세계 무대에서 벌어질 동일한 투쟁을 미리 드러내고 그 전형을 보여 주는 미국 내부의 싸움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은 용의 세력이다. 용은 거짓의 아버지이며, 자유주의 진보 글로벌리스트들은 거짓말로 유명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43, 44.

마귀, 곧 사탄이자 용은 처음부터 살인자(낙태)이며 거짓말쟁이였다.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언쟁을 벌일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대담하게 선포했고, 가이사는 이교 로마, 곧 용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용은 우선적으로 사탄을 나타내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9.

일부는 글로벌리스트들이 현대 유대인을 그토록 미워하는데도 왜 현대 유대인들이 자유주의적 글로벌리스트인지 의아해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교 로마의 왕을 자기들의 유일한 왕으로 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민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메시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던 그들의 오래전에 내린 선택이 그들을 용의 우리 속에 가두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15.

교황권을 위해 박해를 자행한 것은 유럽의 왕들이었고, 어린양과 싸우게 될 자들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들이며, 그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들은 어린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나, 어린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7:14.

용의 권세의 예언적 속성은, 그들이 유아들을 "직접" 살해하고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자들임을, 이교 로마의 역사에서 십자가와 콜로세움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보여준다. 암흑시대에 교황 로마를 위한 피의 대학살을 자행하기 위해 종교재판을 이용한 것도 바로 이 용의 왕들이었다. 그들은 유아들을 살해하는 자들이며 으뜸가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대량학살자이자 거짓말쟁이의 현대적 상징이다. 히틀러는 사회민주주의자였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일명 나치당으로 알려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의 지도하에 나치당은 전체주의 정권을 구축했고,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수많은 만행에 책임이 있었다. 히틀러의 정당은 흔히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와 연관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충분히 큰 거짓말을 하고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원들이 퍼뜨리는 흔한 거짓말은, 현대 공화당의 보수 우파가 히틀러 시대의 나치로 전형화된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거짓된 역사 서사는 히틀러의 정당을 그의 시대의 극우 정당으로 지목하는 데에는 옳지만, 히틀러가 초기 정치적 투쟁에서 좌익 적대자였던 공산주의자들과의 상대적 위치에서만 극우였다는 진실은 늘 빠뜨린다. 미국의 정치 스펙트럼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그 밖의 모든 특징은 민주당의 예언적 특성을 나타낸다.

성경은 그들을 좌우 정치 스펙트럼의 가변적 잣대가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히틀러의 역사적 초국수주의는 MAGA 운동의 애국심을 규정하지 않는다. 히틀러의 초국수주의는 그가 '우월 인종'을 규정한 데서 특징지어졌고,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원적 계급 체제를 구축하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시도를 가리킨다. 물론 글로벌리스트들은 그 체제에서 자신들을 최상층으로 본다. 히틀러의 '우월 인종'이 그것을 대변한다.

거짓말하고 투사하며 비난하는 기술은 용의 특징이며, 그 수법의 전형적인 예는 자신이 실제로 지지하는 입장이거나 스스로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워 비난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며, 마귀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 큰 용, 곧 옛 뱀, 마귀라 불리며 사탄이라 하는 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내쫓김을 당하였다. 그는 땅으로 내던져졌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였으니,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2:9, 10.

오늘날의 진보적 글로벌리스트들과 예언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히틀러의 독일은 의도적인 선전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오늘날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바로 그 선전 체계 속에서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큰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것의 반복이, 오늘날 전 세계의 다양한 소통 경로 전반에 걸쳐 컴퓨터 알고리즘의 수학적 정밀도로 되풀이되고 있다. (CNN, MSNBC, BBC, NPR, Google, Facebook 등등).

라이히스타크 방화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세계 단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저지르는 거짓말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1933년 2월 27일 밤, 독일 의회가 있던 베를린의 라이히스타크 건물(2020년 1월 6일의 미국 의사당 건물에 비견되는)에 방화로 불이 났을 때 발생했다.

그 화재는 방화로 규정되었고, 아돌프 히틀러와 헤르만 괴링의 지도 아래 있던 나치 정부가 국회의사당 화재 포고령을 추진하는 데 구실이 되었다. 독일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서명한 이 포고령은 시민적 자유를 정지시키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체포와 구금을 허용했다. 이는 나치 권력의 공고화와 독일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잠식을 향한 중대한 한 걸음을 의미했다.

그 불, 대다수의 정직한 역사학자들이 히틀러의 사람들이 지른 것으로 인정하는 그 불은 2020년 1월 6일의 사건을 상징했고, 이어서 헌법에 담긴 원칙에 따라 완전히 허용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이들의 헌법적 권리가 파괴된 일 또한 그러했다.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칭송하고 지지하는 블랙 라이프 매터스와 안티파 운동이 초래한 무정부 상태와 파괴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1월 6일은 용의 산물이며, 히틀러의 독일의 나치들에게서 그 전형이 드러난다.

미국의 사회주의 민주당원들은 트럼프를 히틀러의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규정한다. 그들이 따르는 원리는, 충분히 큰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미디어 선전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백성들이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너희 백성들아, 함께 연합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먼 나라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허리를 동여매라, 그러면 너희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매라, 그러면 너희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함께 도모해 보아라, 그러나 그것은 아무 것도 되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 보아라, 그러나 그것은 서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며, 이 백성이 가는 길로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음모다'라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는 '음모다'라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히 구별하라.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그를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의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덧과 울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넘어져 산산이 부서지며, 덧에 걸리고,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 이사야 8:9-16.